

## [고3] 15분 모의고사 Final 10회

이름 :	풀이시간:	분	점수: / 총 100점 (각 10점)
------	-------	---	----------------------

### 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요리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에 ‘다지다 : 찳다 : 찌다 : 찢다’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래에서 이들의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

도구를  
사용합니까?

아니요 →

㉠

↓ 예

칼을  
사용합니까?

아니요 →

질곳공이를  
사용합니까?

↓ 예

㉡

↓ 예

재료를 아주 잘게  
만듭니까?

아니요 →

㉢

↓ 예

㉣

- |       |    |     |     |
|-------|----|-----|-----|
| ㉠     | ㉡  | ㉢   | ㉣   |
| ① 찳다  | 찌다 | 찌다  | 다지다 |
| ② 찳다  | 찌다 | 다지다 | 찢다  |
| ③ 찢다  | 찳다 | 찌다  | 다지다 |
| ④ 찢다  | 찳다 | 다지다 | 찌다  |
| ⑤ 다지다 | 찌다 | 찳다  | 찌다  |

### 2.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맑-도록 [ㄱ]	늑-지 [ㄱ]	읽-지 [ㄱ]
㉡ 맑-게 [ㄹ]	늑-고 [ㄹ]	읽-거나 [ㄹ]
㉢ 닭-같이 [ㄱ]	흑-과 [ㄱ]	침-과 [ㄱ]
㉣ 맑-도록 [ㄹ]	늑-지 [ㄹ]	읽-도록 [ㄹ]
㉤ 맑-게 [ㄹ]	늑-고 [ㄹ]	읽-게 [ㄹ]

- ① ㉡, ㉣을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을 보니,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맑-’, ‘늑-’의 경우와 ‘읽-’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국내 기업은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하므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 수지를 개선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환율이 올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J자 형태가 되므로 ‘J커브 현상’이라 한다. J커브 현상에서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이 오른 비율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환율 상승 후 상당 기간 동안 외국 기업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수입 상품 소비가 가격 변화에 따라 줄어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수출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낮추더라도 외국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소비를 늘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J커브의 형태가 보여 주듯이, 당초에 올랐던 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상품의 가격 및 물량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한편, J커브 현상과는 별도로 환율 상승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상 수지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상품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국내외의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수요 구조에 따라 경상 수지는 개선되지 못하기도 한다. 수출량이 증가하고 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 경상 수지가 그다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에만 의존하여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 등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어 경상 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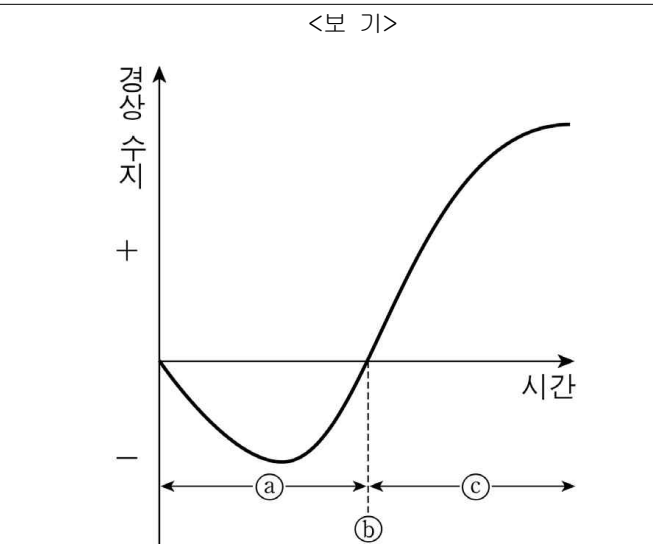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결정되나, 정책 당국이 필요에 따라 간접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정책을 구사한다. 경상 수지가 적자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고환율 정책이 선호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환율과 경상 수지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환율 정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 환율 : 외화 1단위와 교환되는 원화의 양.
- \* 경상 수지 : 상품(재화와 서비스 포함)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결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클 때는 흑자, 작을 때는 적자로 구분함.

3. 위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환율 상승에 따르는 수입 상품의 가격 변화
- ② 경상 수지 개선을 위한 고환율 정책의 필연성
- ③ 가격 변화에 대한 외국 소비자의 지체된 반응
- ④ 국내외 수요 구조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
- ⑤ 환율 상승이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J커브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수입 상품 가격의 상승 비율이 환율 상승 비율에 가까울수록 ㉠의 골이 얕아진다.
- ㄴ. 수출 기업의 품질 및 원가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 구간이 넓어진다.
- ㄷ. ㉡를 기점으로 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 ㄹ. ㉢는 환율 상승을 통해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외 상품의 수요 구조에 따라 수출 상품의 가격 조정이 선행될 수 있다.
- ②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국내외 기업은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이지 관찰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
- ③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가격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국내외 상품 수요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⑤ 국내외 상품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는 경상 수지의 개선 여부와는 무관하다.

6. ㉡에 대해 <보기>처럼 이해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_\_\_\_\_더니,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만 믿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

- ① 감나무 밑에 누워 흥시 떨어지기를 바란다
- ②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 ③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어렵다
- ④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 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대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흥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요?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흥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요?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니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 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①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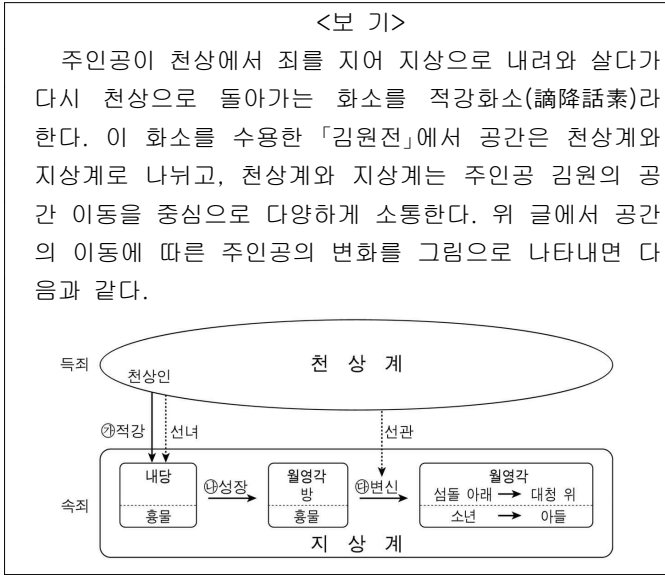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7.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흥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흥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흥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흥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8번과 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10.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8.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